청년 중년 노년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A Study on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 Comparative Analysis of Young, Midlife, and Older Adults

한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노인복지학과
조교수 김윤정*
서울사이버대학교 인간복지학부 실버복지학과
전임강사 강 인**
한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청소년학과
교수 이창식
Dept. of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Kim, Yun-Jeong
Dept. of Elderly Welfare, Seoul Cyber University
Full-Time Lector : Kang, In
Dept. of Adolescent Studies, Hanseo University
Professor : Lee, Chang-Seek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among a sample of young (496 participants), midlife (200 participants), and older adults (115 participa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attitudes of the three generations toward older adults were modest in score, being neither positive nor negative. The older adults' attitudes were the most positive regarding elderly people. In other words, each generation of people showed different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eration and gender. Middle aged women were the most negative toward the elderly, yet older women were the most positive. In addition,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generations in the variables that are related with the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The attitud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lationship with their grandparents for young adults, whereas care giving stress was significantly related for midlife adults, and the level of preparedness for old age (physical, emotional and economic) was a strong predictor for older adults.

▲주요어(key words) : 노인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세대간 차이(generational differences),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

Ⅰ. 서 론

2003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8.3%이며, 2030년에는 전체 경제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통계청 DB, 2003)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과거와 달리 높은 경제력과 교육을 갖춘 질적으로 다른 노인인구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노인에 대한 태도는 생산적이며 성공적인 노화를 반영한 새로운 가치가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인에 대해 의존적이고 무력하다는 고

* 주 저 자 : 김윤정 (E-mail : twoyun21@hanmail.net)
** 교신저자 : 강 인 (E-mail : drhome7@hanmail.net)

정관념과 편견 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과 윗 세대에 대한 오늘날 노인들의 희생과 봉양의 미덕은 지속적인 생애과정을 통해 현재 노인들의 자원 체계를 불리하게 누적되게 하였다. 동시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쇠퇴,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상실 및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단절 등은 노인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켰다. 즉,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노인의 긍정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팽배하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관련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과거 노인에 대한 태도는 가난하고 고지식함으로 정형화되어 있었고, 이에 구빈 관련 정책과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으며, 결국 노인을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인지하게 하였다. 반면 오늘날에는 소비와 생산적인 문화 관련 정책과 서비스가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강인, 2003). 따라서 노인에 대한 태도 관련 연구는 노인의 새로운 문화를 정립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김윤정, 정선아, 2001 ; 이은미, 1999 ; Steitz & Verner, 1987 ; Gilleard & Higgs, 2000)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태도는 성별이나, 연령, 조부모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는 소수(모경빈, 1990 ; 박경란, 이영숙, 2001 ; 윤성혜, 1990 ; 이선자, 1989)에 지나지 않아, 여러 세대에 걸친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여러 세대를 동시에 표집함으로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로 대체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가 갖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조성남, 윤옥경, 2000). 특히 현대의 한국사회처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걸쳐 농경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사회일수록 서로 이질적인 세대가 경험하는 사회적, 역사적 상황이 서로 다르고 이로 인한 세대 차이의 폭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 세대간의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그 만큼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 ; 문용린, 1996 ; 임희섭, 1984 ; Trab & Doddler, 1988).

세대차이가 세대간에 급격한 사회변동이나 다른 성장 배경에 의해 의식, 행동, 생활양식 등에서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세대, 중년세대, 노년세대는 서로 다른 사회화과정을 거치며 서로 다른 문화를 접촉하며 살아온 세대들로 세대간 정서 및 시각 차이가 현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세대간 차이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들(김경신, 1999 ; 정태연, 2000 ; Manning, 1983)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기성 세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실제적인 태도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그릇된 지각이나 믿음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년, 중년, 청년 세대별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현실에 기초한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노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 청년, 중년, 노년 세대 간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성별과 세대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각 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변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통해 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를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세대관계

1) 세대의 의미

세대란 한 시대 안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 집단이며 대부분 연령 코호트를 사용함으로써 이는 모든 개인이 특정한 시기 동안에 태어났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세대를 구분하는데는 역사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 문화에서 세대는 1900년과 192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swing generation"이며, 1927년과 194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공황을 경험한 세대로 "silent generation"이며, 1946년과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세대로 "baby boomers"이며, 1965년과 197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는 여성해방운동과 시민권 운동이 팽배했던 세대로 "baby bust"로 구분되며, 1977년과 199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는 베이비세대들의 자녀들로 "echoboomer" 로 구분로 구분할 수 있다(Quadagno, 2002). 또 다른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구성적인 측면에서 분류가 가능하다. 즉 코호트는 인종, 성, 민족적 특성, 크기로 구분되어 세대는 결혼연령, 평균 가족 크기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 인종 구성, 인구학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세대는 구조적 변화와 관련되어 질 수 있다. 즉 가족, 교육체계, 직업과 관련된 사회 제도 변화는 각 세대의 경험에 영향을 다르게 미치게 된다(Quadagno, 2002).

한편 국내 연구에서도 세대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논문에서 발견된다. 조성남과 윤옥경(2000)은 세대구분을 '코호트 진행 및 사회변동의 측면'과 '개인적 성장의 측면',

'인생구조 개념에 따른 세대구분', '인생구조의 시기별 재배열', '한국사회의 변동과 세대구분'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세대를 각기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구자숙, 한준, 김명언(1999)도 세대 격차와 갈등의 사회 심리적 구조'라는 논문에서 세대의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구자숙 등(1999)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상호간 관계 위치로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로의 구분, 둘째, 나이를 먹음에 따라 연령층이 함께 이동하는 동시 출생집단을 의미하는 경우, 셋째, 청소년 세대나 장년세대라고 부를 때처럼 생애순환주기(life cycle)의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경우, 넷째, 419세대, 유신세대 등과 같이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경우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시간차원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 또한 세대란 한시대 안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며 모든 개인이 특정한 시기 동안에 태어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세대의 개념은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지만 어떤 분류도 연령이라는 개인적 시간을 간과하여 세대구분을 할 수 없어서 발달심리학자들은 연령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Quadagno,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연령과 한국사회에서의 생활 적령기를 토대로 세대를 구분하였다. 세대구분은 청년세대, 중년세대, 노년세대로 나누었다. 청년 세대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대학생 중에서는 만 24세 이하의 미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년세대는 40세에서 59세로, 중년기를 연구한 학자들(대표적으로 Jung)의 견해와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40세가 넘어서야 중년기라고 말하는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노년세대는 60세 이상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만 65세 인구를 노인을 의미하지만, 조기 은퇴나 회갑 등과 관련된 사회통념상 60세 이상을 노인이라 칭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2)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세대란 생물학적 연령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적,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세대연구들은 세대간의 유사성보다는 세대차이, 세대갈등에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공황시기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세대는 절약과 검소가 그들 가치의 기준이라면,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는 대체로 소비지향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다른 가치와 행동체계로 인하여 세대간의 이해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노화와 노인에 대한 태도에도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Hogan & Astone, 1986). 또한 Traub와 Doddler(1988)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세대차이가 크게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내연구에서 임희섭(1994)은 기성세대의 가치로 권위주의, 집합주의, 엘리트주의, 출세지향주의, 그리고 同性의 문화를, 청소년세대의 가치와 행위유형으로 평등주의, 개인주의, 異性의 문화를 들었다. 문용린(1996)은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특성으로 혈연중심성, 안면주의, 형식주의, 획일주의, 위계성을, 신세대가치로 합리주의, 개방주의, 여가주의, 다원주의, 감성주의를 들고 있다. 또한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2000)은 청소년과 성인 집단은 세대차 인식과 심리행동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2000)은 노인이 청소년이나 성인보다 세대차이와 세대갈등을 많이 지각한다고 하여, 세대 차이를 지각하는 데에도 세대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세대간의 유사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의 흐름도 있다. 이 연구들은 세대간의 차이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또는 정체된 사회구조나 문화체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기본전제 하에 각 세대간의 차이보다는 유사성을 좀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Manning(1983)은 17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관련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과 그 부모간에 세대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nderson(1973)은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속한 세대와 상대 세대가 각각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은 태도 면에서 서로 다르지 않았으나, 상대 집단은 자신의 집단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세대간 유사성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김경신(1999)은 부모와 청소년의 가족주의 가치관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자녀간에 부양 및 효의식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며 정태연(2000)도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성을 연구한 결과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는 세대차이가 없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처럼 세대간 차이나 유사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 청년, 중년, 노년세대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지, 혹은 유사한 경향이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노인에 대한 태도

1)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 변수 : 성과 연령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에 대한 감정, 사고, 행동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가하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적어도 연령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경빈, 1990 ; 윤성혜, 1990 ; 이선자, 1989 ; 박경란, 이영숙, 2001). 노인에 대한 태도를 연령별로 조사한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전 연령층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나,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하며 노년기에는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된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윤성혜(1990)의 연구에서는 청년과 중년, 노년

중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집단은 노년세대, 가장 부정적인 집단은 중년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으나 다른 세대에 비해 중년세대의 긍정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경란과 이영숙(2001)은 청소년과 중년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청소년에 비해 중년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묘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mmert, Garstka, Shaner, Strahm (199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노인을 부양하는 중년여성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모경빈, 1990)에서도 연령차이가 확인되었는데 20대에서 50대의 여성 중 40대 여성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였고, 50대 여성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였다.

따라서 연령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요약해 보면 세대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나는데, 연구에 따라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세대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는 노년세대가, 윤성혜(2001)의 연구에서는 중년세대, 박경란과 이영숙(2001)의 연구에서는 노년세대를 표집하지는 않았으나 중년에 비해 청소년이 좀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경빈(1990)의 연구에서는 중년세대 내에서도 40대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대별 성과 관련하여서도 노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노인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고정자, 이은미, 2000 ; 신귀연, 1995 ;Downs & Waltz, 1981 ; Steitz & Verner, 1987)와 아동기와 청년기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노인에게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이선자, 1989 ; Hoffman, 1980)로 대별되어 성과 노인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에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 청소년들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선입관 및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반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 및 태도를 갖는 경향이 높다(박경란, 이영숙, 2001).

한편 성과 노인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는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년과 노년세대에 관한 정보는 부족한 가운데, 윤성혜(1990)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를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모든 세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노인의 신체적인 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심리적인 면에서도 남자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세대에 따라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가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즉, 청년세대 경우 남자청년이 여자청년보다 더 긍정적으로 노인을 인식하였으며, 중년세대에서는 여성들에 비해 중년 남성들이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집단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각 세대 내에서도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청년, 중년, 노년 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함에 있어 세대와 성간의 상호작용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2) 각 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 변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각 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변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 : 청년기의 정체감 형성은 가족 안에서 세대간의 교류를 통해 위 세대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 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부모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문화, 조병은, 1992 ; 성규탁, 1995). 특히 청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노인과의 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박경란, 1994) 본 연구에서도 청년세대의 조부모와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청년세대의 조부모와의 관계와 노인에 대한 태도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와 노인에 대한 태도와 정적인 관계(고정자, 이은미, 2000 ; 서병숙, 김수현, 1999 ; 한정란, 2000)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더 나아가 조부모와의 친밀감이나 접촉에서의 질적인 측면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나 태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윤정, 정선아, 2001 ; 김혜경, 1997 ; 신귀연, 1995 ; 윤성혜, 1990 ; 이선자, 1989 ; 한수정, 1999 ; Baranowski, 1982 ; Kennedy, 1989 ; Stertz & Verner, 1987)도 많다. Newman과 Faux, Lariner(1997)는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특히 청소년들은 노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긍정적인 태도가 높아졌다고 하였다. 청년세대의 조부모와의 관계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덧붙여 자신의 노후에 자녀로부터 동거부양을 받고자 희망하는 집단이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김윤정, 이창식, 2003)도 있다.

즉, 노인과 청소년 혹은 젊은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세대간의 접촉 정도나 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노후 피부양관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변수는 조부모와의 관계 및 자신의 노후 피부양관에서 찾아보았다.

중년세대 :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세대간 비교를 한 윤성혜(1990)의 연구결과 중년세대의 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혜(1990)는 이를 중년세대의 중간세대로서의 입장과 노부모 부양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즉, 중년세대는 청년세대와 노년세대의 중간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 책임으로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실제 노부모 부양을 하면서 겪게 되

는 스트레스로 인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를 거치면서 가족관계 내에서 노인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하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중년기로 갈수록 노인을 가족 내에서 부담스럽고 의존적인 존재로 인지함으로서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수준이 높고 노부모와의 동거가 만족스럽다고 지각할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윤성혜, 1990)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체로 선행연구들이 중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중년세대와 노부모와의 관계로 해석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변인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추론한 중년세대와 노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따른 태도의 변화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중년세대와 노부모와의 관계부양스트레스 및 노부모와의 친밀감이나 가까이에 사는 정도 등을 관련 변수로 연구하고자 한다.

노년세대 : 노인이 지각하는 노인에 대한 태도는 별로 연구되지 않았으나, 윤성혜(1990)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있는 경우,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노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은 청소년들에 비해 그들 자신이 문제가 덜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Moser-Ashley & Ball, 1999), 노인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Barrow, 1996).

이와는 달리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는 다른 여러 세대에 비해 노인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김태련(1988)은 LA에 거주하는 교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는데, 전체 노인의 약 40%정도가 자신의 현재 생활을 불행하거나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how(1999)는 현재 노인세대는 그들을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완고한 성격을 지니며 경제적으로 의존적이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스스로 지각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노인들이 더 이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덜 인식한다고 하였다(Terry, 2003). 그리고 덜 요구받고 불안이 높은 노인일수록 노화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를 이선자(1989)는 낙인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노인이 그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 개인의 결함 때문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결함 있는 인물로 명명되거나 낙인 지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노인의 외부환경에 대한 취약성은 주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가 노인 자신에 대한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노인들의 자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이러한 부정적인 원인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노인들 자신의 자원과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 변수는 노인자신의 자원과 관련된 노후준비정도, 경제력, 학력, 자원 등의 변수와 노인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자녀와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에서 찾아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청년과 중년, 노년의 세 집단이다. 설문조사는 2002년 12월에서 2003년 3월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총 81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먼저 청년세대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조사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과 충남지역에서 각각 한 학교씩을 선정하였으며 남녀와 거주지 비율이 고르도록 편의 표집하였다. 설문지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를 통해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학년별 및 성별, 거주지별 구성이 최대한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550부를 배포하여 미회수된 설문지와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무응답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49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중년세대는 만 40세에서 59세까지로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부모이다. 전체 250부를 배포하여 232부가 회수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정한 만 40세에서 59세의 연령에 맞지 않은 설문지와 무응답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00부를 사용하였다.

노년세대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이 주로 충청지역의 경로당과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의 기관의 협조를 얻어 일대일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11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의 특징

연구대상은 남자가 51.8%, 여자가 48.2%로 남자가 약간 많지만 고른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평균연령은 32.35세(13세-91세)인데 이는 청년세대가 표집 수가 많아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청년세대는 61.6%, 중년세대는 24.8%, 노년세대는 13.5%로 청년세대가 절반이 넘으며 상대적으로 노년세대의 수가 적게 표집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청년세대는 남자 49.7%, 여자 50.3%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고른 분포를 보였고, 중년세대는 남자 46.3%, 여자 53.7%로 여자가 약간 많았으며, 노년세대는 남자 70.8%, 여자 29.2%로 남자 노인이 많았다. 평균연령에 있어서는 청년세대는 18.26세로 이는 저학년의 대학생들이 다수 포함된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중년세대는 47.2세이고, 노년세대는 69.3세이다.

직업별로 보면 청년세대는 고등학생이 54.2%, 대학생은

45.8%로 고등학생이 약간 많았고, 중년세대는 무직 및 가정주부가 33.3%, 자영업 및 일반판매종사자가 28.2%, 그리고 서비스종사자가 13.3%로 무직 및 가정주부가 가장 많았으며, 노년세대는 농업 73.3%, 기타 14.2%로 농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거주지별로 볼 때 청년세대는 대도시가 30.7%, 중소도시 42.5%, 농어촌이 26.9%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수가 대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많았고, 중년세대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64.0%,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27.5%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년이 많았으며, 노년세대는 조사대상 전체가 농촌에 거주하였다.

결혼상태를 보면 청년세대는 모두 미혼이고, 중년세대는 기혼 96.0%, 이혼이나 미혼 등 기타 4.0%이었으며, 노년세대는 기혼 72.5%, 사별 19.2%, 이혼과 별거가 각각 1.7%이었다.

3. 측정도구

노인에 대한 태도는 Sanders 등(1984)의 형용사 척도로 한정란(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노인을 나타내는 반대되는 형용사 쌍들로 이루어진 의미 분별화법으로 20개의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다.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이다.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9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성별과 연령, 종교는 각 세대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였고, 선행연구들을 통하여(서병숙, 김수현, 1999 ; 한정란, 2000 ; 윤성혜, 1990 ; Barrow, 1996)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각 세대의 특성에 적합하게 선별하였다.

청년세대에게는 조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문문항을 선별하였다. 조부모의 생존여부, 동거여부, 조부모와의 친밀감, 조부모와의 전화빈도, 만남 빈도, 물리적 거리 및 노후피부양관(노후에 자신의 자녀로부터 동거부양을 받고자 하는지 또는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지의 이분화된 질문)을 질문하였다.

중년세대에게는 조부모 및 노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항을 선별하였다. 노부모와의 동거여부, 노부모와의 친밀감, 노부모와의 전화 빈도, 물리적 거리, 부양스트레스로 구성하였다. 부양스트레스는 이신숙과 서병숙(1993)의 척도로 Cronbach's α= .98이다.

마지막으로 노년세대에게는 건강상태와 자녀와의 관계 및 노후준비도 중심으로 문항을 선별하였다. 건강상태는 ADL/IADL로 Kempman과 Suurmeijer(1990)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기능장애와 도구적 장애로 나누어졌으며 기능장애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고 도구적 장애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이다. 자녀와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가의 여부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김윤정과 최혜경 (2001)에서 사용된 척도로 총 18문항이며 요인분석결과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 부정적 지지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졌다. 신뢰도는 정서적지지(Cronbach's α= .79), 도구적 지지(Cronbach's α= .70), 부정적지지(Cronbach's α= .78)이다. 또한 노후준비도는 배계희(1988)의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에서 노후준비내용을 기초로 하여 요인부하량 값이 높은 문항들을 선별하였는데, 신체적 준비내용의 10문항 중 6문항, 정서적 준비 내용의 10문항 중 8문항, 경제적 준비내용의 10문항 중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신체적 준비(Cronbach's α= .70), 정서적 준비(Cronbach's α= .84), 경제적 준비(Cronbach's α= .79)이다.

모든 척도는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성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분석방법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변량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적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노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 청년, 중년, 노년의 세대간 차이

각 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표 1>과 같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7점만점으로 4점을 중간점수로 봤을 때 3.82에서 4.29까지로 각 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년세대와 중년세대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 쪽으로 기울었고, 노년세대는 다소 긍정적인 태도 쪽으로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후검증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노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청년이나 중년에 비해 긍정적인데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나 중년기 세대보다 노년기가 스스로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연구결과(강인, 2003 ; 윤성혜, 1990 ; Barrow, 1996 ; Strawbridge, 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1> 노인에 대한 태도의 세대간 차이

<N=810>

	노인에 대한 태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Duncan
세대	청년세대(478)	3.99(.84)	7.31**	b
	중년세대(190)	3.82(1.03)		b
	노년세대(95)	4.29(1.39)		a

**p<.01

본 연구의 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세대간에 유사성보다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다 노년기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세대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들이 모두 중간점수인 4점에 가까운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노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 세대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각 세대의 성별과 세대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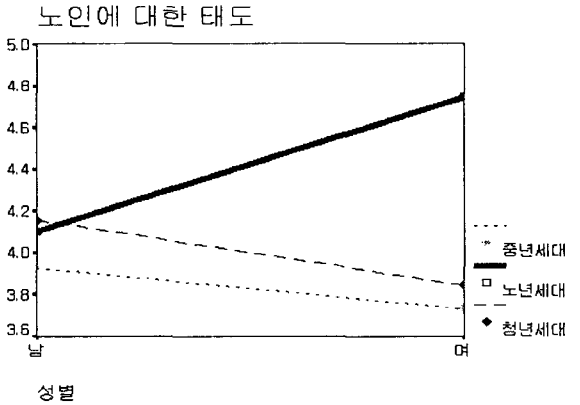
<표 2> 세대와 성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N=810>

	노인에 대한 태도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24	1	.24	.26
세대	19.73	2	9.87	10.67***
성별*세대	15.49	2	7.74	8.37***

*** p<.001

		노인에 대한 태도		
		N	평균	표준편차
남	청년	239	4.15	.91
	중년	90	3.92	1.08
	노년	67	4.10	1.36
여	청년	237	3.84	.75
	중년	100	3.73	.97
	노년	28	4.74	1.36



<그림 1> 세대와 성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세대간의 상호작용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8.37, p<.001). 청년세대와 중년세대는 남자가 여자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지만 노년세대의 경우에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더 나아가 모든 세대 중에서 중년여성의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고 노년여성의 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표 2> <그림 1> 이처럼 중년세대가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나 여성이 왜 더 부정적인지, 노년 여성이 노인에 대한 태도가 왜 가장 긍정적인지에 관한 추정은 논의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또한, 성별과 세대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나 특히 성별보다는 세대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F=10.67, p<.001)는 것은 각 세대별로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 있는 변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역사적이며 구성적이며 구조적인 세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Gilleard & Higgs, 2000 ; Quadagno, 2002).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각 세대별로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탐색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3. 각 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변수

각 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해 상관관계 및 t-test, 일원변량분석을 하였으나 일원변량분석의 결과가 유의하지 않아 연구결과에서 제시하지는 않았다.

1) 청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변수

청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의 개인적이 변수(성별, 학교급)와 조부모와의 관계에서 찾아보았다.

<표 3> 청년세대의 성별 및 노후피부양관과 노인에 대한 태도

<N=496>

	성별			노후 피부양관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노인에 대한 태도	남(240) 여(239)	4.15(.90) 3.84(.75)	4.03*	동거부양관(51) 독립적부양관(431)	4.28(.89) 3.96(.83)	2.42*

* p<.05 *** p<.001

<표 4> 청년세대의 조부모와의 관계와 노인에 대한 태도

<N= 496>

	조부모와의 친밀감	조부모와의 만남빈도	조부모와의 전화빈도
노인에 대한 태도	.224***	.112*	.117*

* p<.05 *** p<.001

청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는 변수는 성별과 노후피부양관, 조부모와의 친밀감, 만남빈도, 전화빈도로 나타났다<표 3> <표 4>.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데 이는 선행연구들(고정자, 이은미, 2000 ; 신귀연, 1995 ; Steitz & Verner, 198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노후에 자녀로부터 동거부양을 받고자 희망하는 집단이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후피부양관과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없다는 김윤정과 이창식(2003)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청소년의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일수록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의식이 매우 높고 청소년 자신의 노후에도 자녀와 함께 살겠다는 의식이 매우 높다(고경애, 1990 ; 이시형, 이재현, 정선아, 정현희, 1999)는 연구결과와는 그 맥을 같이한다.

또한 조부모와의 친밀감이나 만남빈도, 전화빈도 역시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어서, 자신의 조부모와 친밀하다고 지각할 수록, 자주 만날수록, 자주 전화할수록 일반노인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밀한 노인과의 관계가 일반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윤정, 정선아, 2001 ; 김혜경, 1997 ; 신귀연, 1995)와 일치한다. 특히 조부모와의 친밀도가 조부모와의 만남빈도, 조부모와의 전화빈도보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더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단순한 만남빈도, 혹은 전화빈도 보다는 조부모와의 친밀감이 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년세대의 나이, 가정경제수준, 조부모와의 물리적 거리, 조부모의 생존여부, 조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와 노인에 대한 태도가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이은미, 1999 ; 이미정, 1996)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소년의 연령과 노인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김윤정, 정선아, 2001 ; 신귀연, 1995 ; 이미정, 1996 ; 이선자, 1989 ; 조명희, 1987)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2) 중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변수

<표 5> 중년세대의 부양스트레스와 노인에 대한 태도

<N= 200>

	부양스트레스
노인에 대한 태도	-.208**

** p<.01

중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 있는 변수들을 탐색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개인적인 변수(성별, 나이, 기혼여부, 가정소득, 거주지), 노부모와의 관계(친밀감, 동거여부, 만남 회수, 전화 회수, 물리적 거리, 부양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양스트레스만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부모부양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노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변수

노인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변수들을 탐색하기 위해 개인적인 변수와 건강변수, 자녀와의 관계 및 노후준비도를 살펴보았다.

<표 6> 노년세대의 성별과 노인에 대한 태도

<N=115>

	성별		
	빈도	평균(표준편차)	t값
노인에 대한 태도	남(68) 여(28)	4.14(1.36) 4.76(1.34)	-2.09*

* p<.05 *** p<.001

<표 7> 노년세대의 노후준비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

<N= 115>

	신체준비	정서준비	경제준비
노인에 대한 태도	.478***	.424***	.419***

*** p<.001

표 6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변수는 노인자신의 성별과 노후준비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의 수가 적기 때문에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 또한 노후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준비, 정서준비, 경제준비가 잘되어 있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은 제외한 개인적인 변수(나이, 가정소득, 기혼여부, 직업, 학력), 건강변수(기능장애, 도구적 장애), 자녀와의 관계(사회적 지지, 부양여부)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년, 중년, 청년

세대별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을 고찰하여 각 세대에 적합한 변수들을 선별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2년 12월에서 2003년 3월 사이에 자료가 수집되었다. 청년세대 496명, 중년세대 200명, 노년세대 115, 총 810명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모든 세대에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정도의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는 현재 변화하는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즉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가 유교적 이념과 서구이념이 혼재되면서 과거 노인에 대한 존경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가 약화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내면에 잠정적인 효의식이 내재되어 있어서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도 부정도 긍정도 아닌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청년, 중년, 노년세대간 집단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다른 세대에 비해 노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청년이나 중년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세대간에 유사하게 지각하기보다는 서로 다르게 지각한다는 것으로 세대간의 가치관이나 태도, 행동 양식에서 세대 차이를 주장했던 연구들(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 ; 문용린, 1996 ; 임희섭, 1984 ; 이건우, 유호식, 2000 ; Traub & Doddler, 1988)과 일맥상통한다. 이때 노년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보다 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는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것보다 당사자들은 훨씬 더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별과 세대가 상호작용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모든 세대 중에서 중년여성의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고 노년여성의 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 대부분 노인을 부양해야 하고, 부양하고 있는데서 따른 부양 스트레스로 인하여, 중년여성이 훨씬 더 노화와 노인의 과정을 보다 더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인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는 달리 노년세대는 대체로 양성적인 성역할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노년여성은 부계 체계 하에 대체로 평가 절하되는 여성적 영역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와지면서 노년여성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청년세대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변수 가운데, 조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서, 조부모와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자주 만날수록, 자주 전화할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위해서는 세대통합의 차원에서 보다 더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긍정적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년세대는 부양스트레스만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년기에 있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노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다(Terry, 2003)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중년세대는 여전히 가족주의 가치관 하에 샌드위치 세대로 혹은 클럽샌드위치 세대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실질적인 과중한 부담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노인부양 시설의 절대적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중년세대들에게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다소 부정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년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적 부양체계의 확립과 사적인 부양과 공적 부양의 통합 및 사적· 공적 서비스전달체계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는 노후준비도만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준비를 잘 할수록, 정서적 준비를 잘 할수록, 경제적 준비를 잘 할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노인인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또한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에도 연장된 노후생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노인대학 참여나, 노인정 참여여부, 여가와 관련되는 변수 등을 포함시킴으로서 노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변수들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한다.

이러한 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결과는 공통 변수추출이 어려운 관계로 세대별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으나, 결국 이러한 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관련 변인들은 세대간 층화가 아닌 세대 통합이 이루어질 때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청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조부모와의 경험은 노년 세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하여야만 이루어지며, 이는 동시에 중년 세대의 교량적 역할이 없이는 힘들고, 또한 중년세대의 부양부담은 노년세대와의 교류를 통한 조절이 전제조건이 될 것이며, 노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 노후 준비도는 지속적 교육을 전개해야할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년유사체험, 세대통합교육, 노년관련 프로그램 등이 다양한 사적, 공적 체계하에 실시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에 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결과는 추후 세대간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변인을을 추출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세대간 공통변수를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추출하기가 어려워 세대별 접근을 주로 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위해서 기초조사를 통한 공통변수를 추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노년세대는 남자 70.8%, 여자 29.2%로 남자 노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노년층의 성비와 부합하지 않아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자료수집과정에서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들이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무응답비율이 훨씬 높아 본 연구에서 사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화된 조사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여자 노인이 포함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만을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의 연구에서는 청년세대가 지각한 중년세대에 대한 태도, 중년세대가 지각한 청년세대에 대한 태도, 노년세대가 지각한 청년세대와 중년세대에 태도 등 각 세대가 지각하는 상대방 세대에 관해 분석함으로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성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 낼 수 있으리라 본다.

□ 접 수 일 : 2003년 11월 15일
□ 심 사 일 : 2003년 1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1월 26일

【참 고 문 헌】

강인(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 95-113.

고정자 · 이은미(2000).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문집, 8**, 5-36.

구자숙 · 한준 · 김명언(1999). 세대격차와 갈등의 사회심리적 구조. **심리과학, 8(1)**, 123-139.

김경신(1999).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43-65.

김명언 · 김의철 · 박영신(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김윤정 · 정선아 (200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간의 관계규명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73-183.

김윤정 · 이창식(2003).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노후피부양관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3)**, 65-82.

김윤정 · 최혜경(2001). 가족부양이 장기요양보호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2)**, 99-112.

김의철 · 박영신 · 김명언 · 이건우 · 유호식(2000). 청소년, 성인, 노인세대의 차이와 생활만 족도. **한국심리학회지:보건, 5 (1)**, 119-145.

김태련(1988). 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1)**, 30-47.

김혜경(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미국 이민가족내의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간의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79.

모경빈(1990). 노인에 대한 농촌여성의 태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 간호과학연구소, **간호과학, 2**, 119- 142.

문용린(1996). **신세대의 이해 -그들의 의식과 유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삼성복지재단.

박경란(1994). 부모-조부모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손자녀-친조부모간의 유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4(2)**, 74-89.

박경란 · 이영숙(2001). 대학생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분석. **한국노년학, 21(2)**, 71-84.

배계희(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귀연(1995).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노인 이미지**.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서병숙 · 김수현(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19(2)**, 97-111.

윤성혜(1990). **청년, 중년, 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신숙, 서병숙(1993). 부양자스트레스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3(1)**, 39-54

이미정(1996).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자(1989). **연령 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시형 · 이재현 · 정선아 · 정현희(1999).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및 부양의식.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99(2)

이은미(1999). **중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텔레비전의 드라마와 코미디물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정태연(2000).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한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19.

조성남 · 윤옥경(2000).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사회과학연구논집, 5**, 1-20.

한수정(1999). 일부여대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간호논집, 8**, 239-252.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8

통계청 (2003). 통계청 DB.

Anderson, B. E.(1973). Misunderstandings between generations : A general phenomenon?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7(1)*, 1-10.

Baranowski, M. D.(1982). Grandparent-adolescent relations: Beyond the nuclear family. *Adolescence, 17*, 565-584.

Barrow, Georgia M(1996). Aging, the individual, and society (6th ed.). Minneeapolis? St. Paul, Minn: West Publishing.

Chow, N.(1999). Diminishing filial piety and the changing role and status of the elders in Hong Kong.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1(1)*, 1-22.

Kennedy, G. E.(1989). College students' relationships with grandparents. *Psychological Report, 64*, 477-478.

Gilleard, H.(2000). Identity, self-care and staying young, *Cultures of ageing*, Prentice Hall, 59-89.

Hoffman, E.(1980). Young adults' relations with their grandparents: An explorato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0(3)*, 299-310.

Hogan, Dennis P. & Nan Marie Astone(1986).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nal review of sociology 12*, 109-30.

Hughes, Everett(1971). *The social eyes*. chicago: Aldine. Hummert, M. L., Garstka, J. L., Shaner, J. L. & Strahm, S.(1994). Stereotypes of the elderly held by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9(5)*, 240-249.

Kempen, G. I. J & Suurmeijer, T. P. B. M. (1990). The development of a hierarchical polychotomous ADL-IADL Scale for noninstitutionalized elder. *The Gerontologist, 30(4)*, 497-502.

Kennedy, G. E.(1989). College students'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Pychological Report, 64*, 477-478.

Manning, M. L.(1983). Three myths concerning adolescence. *Adolescence, 18(2)*, 823-829.

Mosher-Ashley, P. M., and Ball, P.(1999)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toward elderly persons and their perceptions of themselves at age 75. *Educational Gerontology, 25(1)*, 89-102.

Newman, S., Faux, R. & Larimer, B.(1997). Children's views on aging. *Gerontologist, 37*, 412-17.

Quadagno, J. (2002). *Aging and the Life Course*. McGraw-Hill Company.

Steitz, J. A. & Verner, B. S.(1987). What adolescents know about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13*, 357-368.

Strawbridge, W. S., Wallhagen, M. I. & Cohen, R. D.(2002), "Successful aging and well-being". *The Gerontologist, 42*, 727-733.

Terry, T.(2003). *Attitudes about Aging*, Aging in the new millennium

Traub, S. H. & Dodder, R. A.(1988). Intergenerational conflict of values and norms: A theoretical model. *Adolescence, 23(92)*, 975-989.